

第三編 天惠의 資源과 보배

아득히 먼 옛날 슬기로운 한열님의 자손 배달겨레는 멀리 천산으로 부터 해뜨는 고장, 따사로운 터전을 찾아 동으로 동녁으로 移動하면서 저 넓은 동북亞의 거의 전부라 할만한 넓은 땅, 남북滿洲 벌판과 黃河以東의 기름진 땅을 발판으로 짐승을 쫓고 고기를 낚으며,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며 繁榮하여 왔다. 남으로 한민족의 興亡盛衰와 浮沈을 함께 하며, 먼 옛부터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준용하며, 그 어느 겨레보다 앞서 글자를 지어 쓸줄 알았고, 또 농경을 할줄 알았다.

살찌고 춥지 않은 땅을 찾고 가리어 뿌리박은 땅!!

이 땅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한반도이다. 워낙 천성이 溫順하고 仁慈하여 남이 나를 다치기 전에는 결코 남을 害하지 않으며, 싸움을 싫어 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출길줄 아는 슬기와 멋을 갖고 있었다. 이 겨레가 고조선으로부터 백제초에 이르도록 數千年 東北亞를支配하고 주름잡던 東夷겨레는 위로 한열에 祭祀하고, 아래로 땅에 감사할 줄 알았으며, 부족상호간에理解와 信義를 중히여겨 過慾은自制하고 讓步를 미덕으로 삼아, 언제나 勲勳한 氣概가 넘쳐 흐르는 가운데 燦燃한 고문화를 이루하고 꽂피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따사로운 남녘땅을 찾아 漸進的으로 남하 定着한 곳, 이 땅이 이제 영원한 삶의 터전이며 또한 子孫萬代에 물려 주어야 할 福되고 슬기로운 땅 한반도이다.

이곳에 定着한 이래 수많은 內外의 變亂과 外敵의 侵略이 있었으나, 그때 그때 겨레의 힘과 智略을 한데 모아 슬기롭고 알차게 國難을 克服하고, 對處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유구한 시일과 長久한 歲月이 흘렀어도 오직 뿌리와 其根源은 잊지 않았다.

한겨레의 脈을 잊고, 또 이어 백제를 이 고장 廣州에 세워 七百年의 歷史를 남겼음은 어느모로 보나 檻祚王의 앞날을 바라볼줄 알았던 어진 마음과 슬기였으나 또한 이 고장 廣州人의 슬기와 뭉쳐진 힘의 結晶이 아니고, 무엇이랴.

오늘날 백제는 아득히 먼 옛날 亡하였다 하여도 백제인의 슬기는 저 日本文明을 이룩 할 수 있도록 教化하고 指導하였던 先知者の 가르침과 뒷 받침의 變化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늘날 世界의 일등문화인 이라고 自處하는 倭人們도 그 文化를 풋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준 한민족의 슬기와 힘의 뒷받침의 공이 크다고 自認하고 보면, 일본문화의 中興의 源泉의 뿌리를 찾는다면, 결코 廣州 아니 남한산 周邊에 뿌리를 박고 살었던 이 고장 옛 선조들의 슬기를 결코 否認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其 옛 사람도 가고 또한 잡든지 千有餘年이 흘렀다. 이제 古老들이 묻혔던 무덤 속의 遺骨도 盡土되어 한줌 흙으로도 남아있지 않으며 숨소리 조차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출기는 쓸어지고 잎은 떨어져도 그 열매와 씨앗은 맷어 또 이땅에 떨어지고, 또 자라나 오늘에 이르도록 代를 물리고, 또 代를 이어 왔으니, 할배뼈 녹아 흐른 물을 마시고, 어버이에 슬기와 냇이 것 든 이 땅 광주 하늘에 呼吸하고 살았거니, 이 어찌 광주인으로서의 슬기와 精持가 없겠는가?

이곳 저곳에 흘러진 무된 돌조각, 썩다 남은 기와 한조각, 그 어느 하나를 대하여도 옛 이야기가 있고, 슬픈 사연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한산 주변에는 이러한 可憐한 사연과 기쁘고 즐거운 일을 속삭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날날의 물증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고개마루 무명의 무덤에서, 그리고 시냇가 고목에서 어제와 그 옛날에 날날의 일들을 이야기할 듯 이야기할 듯 우리를 기다리고 내일을 위하여 속삭이건만 그뜻을 아는자, 그 말을 듣는자, 너무도 없을 뿐이다. 고조선 이후 백제초기 까지의 사연은 그만 두고라도 저壬辰, 丙子兩亂時에 남한산 周邊에서 일어났던 크고 적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을 에이듯 짜릿하게 하물며 그때 그 일을 맞이했던 조상들의 고심과 슬픔은 어떠하였겠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였다 하겠다.

이제 이 고장 古老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口碑傳의으로 傳하고 이어져 온 古談들과 뒷 글목 書籍街의 쓸모없이 구겨진 破紙속에 남겨진 글귀와 글자를 모아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슬기와 열을 조금이나마 되살리고자 하여 이 책을 편다.

오늘날 高度人類文化의 발견은 우리 생활의 至極한 便利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곳 저곳 無秩序하게 파헤쳐진 過意慾的인 현장과 높아져만 가는 洋灰뭉치의 콘크리트 문명은 淳厚하던 우리 겨레의 清雅하고 崇高한 마음의 안정과 千有餘年 情 들었던 고향마저 잊혀가고 있다. 때 늦은 감이 너무나 크고 愛惜한 情 없지않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周邊에는 얼마남지 않은 선인들의 손때들은 자취와 걸들인 냇의 片片들을 이곳 저곳에서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어 다행한 노릇이라 하겠다.

지나는 길손들의 주고받는 담화에서, 그리고 제 멋대로 버려진 밭가 연자맷들에서, 또는 재옹에 仙惶堂에서 허무려진 돌암밀에서 덩구는 기와조각에서 우리 고을에 슬기와 문화유적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다 사랑의 고장 광주 아니 한산은 옛 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接境으로서, 그리고 백제의 옛 서울 都邑地로서 그리고 이조 五百年 서울(漢城)의 外郭地로서 밀

고 당기고, 쓰고 쓰기고 하던 戰痕 및 擊戰地가 너무도 많으며 또한 중요한 要衝地였다. 뿐만아니라 이 땅을 始撥로한 南撥의 起點이기도 하며, 烽燧의 最終地 및 舉火地이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 어느 나라고 간에 國難과 危急이 없었으리오마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幾千年을 두고, 北 흥과 南蠻들의 侵略이 非一非再, 이루 해아릴 수 없이 많고 보면 서울의 길목에 위치한 광주땅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군사면에서 또한 經濟面에서 통신과 문화傳播面에서 그 모든 點에 있어, 貴重한 고장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광주고을에 사람들은 옛부터 責任感이 강하고 의리에 앞서며, 신의에 두텁고 節制가 있어, 위로 나라의 충성하며 집에 머물때 부모에 효행하고 이웃에 和睦하여 광주땅 사람들은 옛부터 班鄉人이라 일컬음이 여기에 起因하였다. 國難에 있어 몸을 사르고 던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였고, 고장의 신의와 名譽를 위하여 誠勤力行하였으며, 마을마다 효열이 무수히 輩出하였다. 其 어버이 바르니 其子 孝하며, 其 지아비 어지니 其 아내 順從하여 한 고을이 和睦하였을 뿐만 아니라 賢婦烈女가 繼門繼姓하였다 그리하여 그 어느 고을보다 충효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고장은 옛부터 書鄉이기도 하였다.

비록 한나라를 대표할 만한 巨賢名儒는 적었다 하더라도, 한 세대 한 세대를 살다간 賢人名士가 非一非再 수없이 많이 輩出하였다 함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講經咏詩의 선비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力耕勤讀하는 土農의 擊壤소리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랑스러운 땅이 광주 아니 한산이다. 이제 이 고장에 슬기를 더듬어 보면,

첫째, 국방 護國의 重要한 땅 광주,

둘째, 輸送 통신 및 公路로서의 광주,

셋째, 효열 人脈의 고장 광주,

넷째, 文化의 고장 광주,

다섯째, 傳說이 많은 고장 광주,

여섯째, 未來의 豐饒와 繁榮을 약속하는 고장 광주,

일곱째, 자랑과 슬기가 넘치는 새고장 광주로 요약할 수 있다 할것이다.

第一章 史的으로 본 백제, 그리고 광주땅

백제는 廣州 慰禮城에서 건국하여 수백년간 燦爛한 文明文化를 풀피웠지만 신라가 唐과 손잡고 羅唐聯合軍으로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三國統一의 偉業을 成就시켰으나, 其當時 數많은 典籍과 史庫를 불태워 버린 어리석음을 저질러 近日 백제사를 알뜰히 밝힐 뚜렷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니, 이 어찌 痛忿하고 痛歎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 고장 廣州땅이 옛 백제의 도읍지이었다 함은 舉皆가 云云하고 있으나 뚜렷한 記錄이 없어, 일부 歷史家들의著述과 많은 사람들의 口話傳을 함께 기록하니, 后日 많은 參考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누군가가 꼭 밝혀야 좋은 줄로 생각한다. 이 땅 廣州에는 여러모로 검토하여도 옛 백제의 도읍지였음을 明苦觀火이나, 더 以上的 기록은 찾을 길 없으니 오직 嘆恨이 길뿐이다.

이제 백제 건국설화는 대략 아래와 같다.

第二章 先史 遺跡地 広州

漢南은 地理的으로 춥지도 또한 더울지도 않은 溫和한 땅이며, 北에서 달려 내려온 太百山 준령이 鐵嶺에서 分기되어, 廣州山脈을 이루어 西南으로 벌어나려 면춘곳으로 산에는 樹木이 욱어져 四季節 노루와 맷돼지 및 온갖 금수가 뛰여 놀고, 멀리 太百山脈에서 發源하여 시냇물을 이루어 천리를 西北流하여, 큰 가람을 이루고 金剛山腹에서 흐른 샘이 五百里를 西南으로 흘러흘러 강물이루니 곧 漢水다. 이 南北漢水가 이곳 南漢어귀에서 合流되어 悠悠한 長江을 이루니, 이 맑은 물엔 온갖 水藻類와 물고기들이棲息하여 살저있고, 기름진 들녁이 가람과 泰山이 휘돌아 이룩한 고장, 한터별 漢水방엔 그리 높지 않은 山野가 班班한하여 가히 삶을 갖일만한 기름진 땅이라 오랜 옛적부터 人類가 삶의 터전을 굳히고 다듬은 곳이다.

이렇듯 아름답고 豊厚한 고장에 일찍부터 農耕文化가 發達되어왔음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百濟始祖 溫祚王이 이 땅이 可히 都邑할 만한 곳이라 하고, 나라를 세워 富國의 기틀을 삼은것은 이에 연유함이다. 西海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 魚鹽을 쉽게 求할 수 있고, 수풀이 깊어 시료(땔감)를 언제나 얻을 수 있어 겨울에 따사롭게 추위를 넘길 수 있으며, 江河에선 물고기를 낚고, 山에선 사슴과 노루를 사냥하며, 기름진 들녁엔 씨를 뿌려 거둘 수 있었다. 이리하여 아득히 먼 옛날부터 土器文明을 이루고, 이어 新石器文明을 거쳐 鐵器時代에 이루도록 繼綿히 文明의 꽃이 되었으니, 그 자취는 漢水邊 南漢山록 곳곳에 아직도 數없이 흩어져 있어, 오늘날 貴重한 文化遺跡인 先史資料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時代時代 外勢의 侵略으로부터 견디고 살어갈 수 있는 國防의 기틀도 되였고, 自然漢水와 廣州山脈의 地勢의 險崖를 利用하여 國難을 막으며 部族을 지키고 繁榮할 수 있는 좋은 고장이었으리라.

이렇듯 貴重한 先史遺跡을 證할 수 있는 資料는 近者 이곳 저곳에서 繼續 밝혀지고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岩寺里 一帶(現 서울市 江東區所在)와 漢沙里一帶에 先史遺跡地群이다. 岩寺里 遺跡은 阿且山을 마주보는 漢江南岸에 位置한다. 이 遺跡은 漢江기슭의 砂質堆積地에 있으며, 櫛文土器뿐만 아니라, 無文土器와 옛날 住居趾痕 및 百濟時代의 遺物로 混在해있다. 처음 나타난 것은 1920年頃 漢江邊岸에서 많은 櫛文土器片이 露出되였으나, 別無觀心이였다가 그 후 1925年 大洪水로 因하여 그 一圓이 先史 住居地임이 露出된 以后 解放以

前에 日人 橫山將三郎 藤田高策 等에 依해서 1930 年頃 表面調查가 實施되어 많은 遺物을 採集하였다. 이 遺跡은 우리나라에 있어 檵文土器가 存在하였음을 最初로 알려주었을 뿐아니라, 그 規模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그后 漢沙里 一帶에서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어 學界의 貴重한 學術資料가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歷史研究에 있어 좋은 증빙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구한 歷史를 가진 슬기로운 民族임을 證하는 값진 유적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이 미사地區一원은 其后 八堂啞關係로 한水 일원이 沈水케되어 서둘러 調查한바 있으며 1968年 以后 各 大學博物館에서 공동으로 調査를 펴고 있다. 이밖에 산성리 일원에 흐트러진 瓦堂文樣 西部面 野塔里에 石塔等은 土器文明과 石材文明을 대표하는 좋은例이며, 實村面 五香里에 고대쇠를 녹이든 熔鑄趾 그一帶 밭에 훌어진 옛 陶器片片等 곳곳에 자취가 남겨 있음을 볼때, 옛부터 舟運의 便이 있고, 樹木이 울창하며, 人心이 溫順和合하여 勸勉淳朴함이 또한 선사문화를 꽂피게 하였음이니, 이 또한 한산고을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第三章 西學의 發祥地

李朝中葉 날로 어지러워 가든 朋黨들의 甲論乙駁 속에 國政은 혼미를 거듭하고 士林들의 儒學에 對한 뿌리깊은 固質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近視眼的 行政과 功利空名에만 急急하여 天下의 大勢와 世態의 變移를 까마득히 잊고 싸움만 거듭하여, 土禍와 黨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으며, 國基가 흔들린지 한두번이 아니었다.

선비 몇몇 사람들의 사사 감정은 마침내 四色으로 갈리어 서로 헐뜯고 죽이고 죽여, 한때 東人이 得勢하였는가 하면, 또 다음날은 西人이 得勢하고, 오늘은 南人인가 하면, 來日은 北人, 이와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여오다. 숙종 二十年 甲申獄事 以后 南人們이 된서리를 맞어 큰변을 당하게 되자 어지러운 서울을 떠나 산깊고 물맑은 이곳 廣州고을로 한사람 두사람씩 潛居하게 되니 그 中에도 南人們의 쟁쟁한 후예들이 많았었다. 이들 中에는 일찍부터 오랜歲月 익혀왔던 儒教에 對한 회의와 함께 丙子亂 以后 北京으로 부터 傳來된 西學에 눈을 돌리기始作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學門의 넓은 幅의 심취되었고, 처음 맛보는 天主實議에 온 정신을 쏟게되어 한둘이 모이면 實學에 對한 論論으로 날을 보내고 세묜이 모이면, 이에 對한 비교비판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자, 이에 退村面 牛山里 깊은 골에있는 天真庵이란 적은 암자에 모여 講論講學으로 餘生을 보내게 되니, 이것이 우리나라 實學研究의 효시이며 西學에 발상이니 오늘날 우리나라 天主教의 발상지라 일컬음도 여기에 연유함이다.

누구보다 먼저 天主의 높은 뜻을 理解하게 되고, 또 傳道하기에 이르니 그 빛과 얼이 永遠이 함께 할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天真庵을 오늘 天主庵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第四章 孝烈의 고장

廣州 사람들의 氣質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忠義를 第一로 삼았다. 數千年 이어오는 죽이고 죽어야했던 戰陣 속에 廣州人の 후예들은 오직 祖國과 겨레를 爲하여 슬기롭게 對處할 줄 알았으며, 오직 죽음이 있을뿐 더럽고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다. 저 丙胡亂을 전후해서 이 땅 廣州에서 많은 사람이 義롭게 죽었으며, 其子 아비의 뜻을 받들어 孝하고, 其婦 남편의 충고한 精神과 榮譽로운 이름을 받들어 깨끗한 삶을 다했으니, 이 어찌 아름다운 고장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마을마다 孝子를 기리는 소리가 있어, 洞里 어귀엔 孝子碑가 서고, 고을마다 烈婦를 稱頌하는 佳話가 높아 旌閭가 하루하루 그 數를 더 해갔다. 그리하여 隣近고을 사람들이 舉皆曰 學廣州之風이라 하였으니, 可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어버이 스스로 孝하니 其子 孝하고, 其婦義烈의 죽으니 其子婦 또한 뒤따라 충고하고 드높은 정신은 천추를 傳하고도 남음이 있다.

孝子로는 다섯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父母가 돌아가매, 매 六年을 服喪한 韓述이 있으며 나이 겨우 열살(10才)의 손가락을 깨물어 其父의 藥의 피를 섞어드린 鄭守明이 있고, 父母에 至誠으로 섬기다 돌아가매 侍墓살고 成宗國喪에 흙로 三年喪을 입어 燕山甲子에 죽음을 當한 鄭誠謹이 있으며, 父母의 非命에 간것을 哀慟하다 굶어 죽은 鄭臣이 있다. 鄭臣은 自己뿐만 孝한것이 아니라, 아우 梅臣과 梅臣의 아들 元麟, 元麒, 元麟의 아들 孝誠이 모두 장한 孝子여서 四代의 결친 孝門으로 旌閭되고 父母에게 不孝될까 念慮하여 五десят도록 장가가지 않고 六十에야 娶妻한 具効慎이 있으며, 王亂때 倭敵에게 죽음을 當하게 될 아버지를 몸으로 감싸 살리고 代身죽은 李旻, 李昇의 弟兄가 있으며, 其兄弟의 妻도 둘다 자결하여 一家孝烈의 門이 있고, 나이 겨우 아홉 살에 아버지의 유해가 飲谷藁葬때대로 있는것을 알고 슬피울어 先塋으로 安葬한 李時雨가 있고, 王亂때 武甲山에서 倭賊에게 아버지를 救하려다 함께 죽은 安大楨이 있고, 十二才의 父危篤때 斷指한 十二才 孝子 安載上門이 있고, 十二才의 父喪을 當하고 어머니 섬기지 못할가 걱정하여 벼슬치 않고, 至誠으로 孝하여 倭賊도 감동시켜, 어머니를 놓아준후 禮갓추어 장사하고 侍墓사니, 明將이 탄복하여 이르기를 중국도 도문 執禮의 도타움이라 일컬은 金仲伯이 있으며 벼슬이 參判에 이르고도 지성으로 어머니 섬기고 斷指保命토록한 朴世儒이 있고 아버지종기(瘞氣)를 번갈아 10年을 빨아가며 侍墓三年의 夫人을 相面치도 않은 金鎬와 김석 弟兄가 있다. 그리고 三年을 侍墓사는 아버지를 위

해 그가 병들자 딸셋이 모두 단지 주혈하여 연명을 꾀하였고, 손깨물때 물들은 치아의 피자육이平生을 가니, 孝心의 하늘도 감동한 血痕이라 이르는 安鉉一門의 孝行이 있으며, 宣祖의 王孫으로 여덟살때 父喪을 당한뒤, 病中の 아버지가 배를 먹고 싶어 하였으나 철아닌 배라서 시양치 못함을 恨하여 平生 배를 입에 대지도 않았고, 늙도록 親忌를 밤새워돌보니, 其子 高平君도 그에게 孝한 二代孝門의 昌興君修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 危篤時 먹고 싶어하는 銀魚를 사드리지 못함을 한하여 저자의 은어만 보아도 平生 눈물진 李義健이 있고, 어머니를 지효로 섬기여 其母 꿈속에 먹었던 닭고기국물 냄새가 꿈을 깬 후에도 닭국냄새가 났다는 至孝의 權授라는 者가 있고, 어버이生前과 死後를 받들어 科舉를 斷念한 金磽勳이 있으며, 父母墓의 侍墓살며 每日 號哭하다 죽은 南泰延이 있었고, 賤婢의 한女人이 盜賊들이 죽이려 하는 그 아비를 몸으로 덮어 父女가 죽음을 謂免한 慎氏 女가 있고, 자신은 平生 粥도 못먹고 草根本皮로 연명하면서도 其父 至誠으로 섬기고 其父에게 드리고저 五十里밖에 서 콩죽을 사오다 넘어뜨린 至孝의 최봉향이 있어 콩죽바위라는 전설을 남게 한 가와가 있으며, 養父母를 平生을 지성으로 뵈시고 岁後三年을 호랑이가 출몰하는 혐산中에서 정성껏 侍墓살기 거듭六年의 具德會란 者가 있다.

그뿐이겠는가 곳곳에 이를 따를만한 孝子가 無려 不知其數이다. 이 어찌 千秋의 빛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뿐이겠는가 孝子의 못지않게 烈婦烈女가 또한 무리로 배출되였으니 南原을 능가하는 烈女의 고을이다. 春香의 節介보다 드높은 저 百濟때의 도미의 아내(都彌의 妻)가 있으니, 盖婁王의 끈질긴 유혹과 위협을 마다하고 王의 노여움을 사 눈빼인 도미를 찾아 해매이다 江流속에서 피리불며 처절이 유랑하는 도미를 찾아내어 함께 고구려로 떠난 激切極한 도미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고, 남편이 燕山甲子의 멀리 귀양가 害를 입자 정성껏 장사지내고 盧幕짓고 平生을 흰옷입고 祭奠드린 李氏 成景溫의 아내가 있고, 나이 14才의 시집가 父母를 孝誠으로 섬기고, 남편모시기를 손님모시듯 平生을 다하다 燕山乙丑에 그의 남편이 귀양가서 죽으매 食飲을 全廢하고 平生 남편墓를 向하여 옷갈아 입고 절을 한 李彥光의 아내와 그의 올케 鄭世의 妻가 있고, 丙子亂에 其夫가 拉致되자 모양을 터트려 추물모양 위장하고 세번이나 潘陽까지 찾어가서 其夫를 만나지 못하자 목매어 自盡한 尹齊의 妻安氏가 있고, 丙子亂때 남편은 벼슬살이로 南漢山城에 들어가고, 婦人 혼자 子女데리고 黔丹山下로 피난하다, 賊을 조우하니 벗어나지 못할것을 自覺하고 칼뽑아 自裁하니 나라에서旌閭하매 乙丑生丙子死 風有德結就義 三男女承厥祀命旌閭家翁職이란 詩를 其夫가 쓴 許禪의 妻 李氏가 있으며, 丙子亂때 殉節한

林希選의 아내 南氏가 있다.

그리고 丁丑年에 避兵하였다가 春川에서 죽어 죽은곳을 몰랐던次 其夫에게 꿈의 현몽으로 尸體찾으니 亂리에 보전하기 어렵겠고 죽은뒤에 父母任의 얼굴이라도 떨게되면 살아서 더럽혀진것 보다 낫겠노라고, 두살된 어린 자식과 함께 자진하고 유서를 남겨,當時의 급박함을 알린 鄭友益의 妻 金氏가 있다. 그뿐이겠는가 火焰을 무릅쓰고 祠堂의 뛰어들어 神主를 은전이 되신 安通命의 아내 柳氏가 있고, 祠堂의 불이나자 불을 끄려고 불속에 뛰여든 남편따라 불속으로 뛰여들어 가서 함께 소사한 具龍端의 아내 瘦氏와 具聖揆의 아내 薛氏가 있다. 그리고 밤중에 도적이 들어 칼로 그 남편을 위협하매 몸으로 감싸 祸를 모면케하고, 시부를 지성으로 섬긴 李捐의 妻 邊氏가 있다. 그리고 시집간지 1年이 못되어 그 男便이 죽으매 哀毀한 나머지 17個月 뒤에 自盡한 漢陰相公의 玄孫婦 李元翼의 아내 金氏가 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喪期를 마치고 자택해 뒤를 따른 李得恒의 아내가 있으며, 男便과 사모가 도적의 칼앞에 위급하자 代身 몸으로 칼을 막아, 어깨와 팔이 잘리고 不具되어 죽은 孝子 朴謙의 아내 李氏가 있고, 남편이 죽자 꿈에도 잊찌 못해 젖어죽은 安挺揖의 妻 黃氏가 있으며, 남편이 疫病으로 죽자, 목매어 자살한 鄭德懋의 아내 宋氏가 있다. 그리고 媳父와 男便이 傳染病으로 죽자 손수殮하고, 죽은 李撥의 아내 申氏가 있으며, 남편 疫病으로 죽자 통곡하고 물에 빠져죽은 上典의 죽음을 슬퍼하여 뒤따라 죽은 侍婢 辛今과 李載俊의 아내 安氏가 있으며, 郡守 李守頤의 상소로 烈女門, 忠婢門이 함께 내리니 辛今의 나이는 겨우 20才이였다 한다.

그리고 남편이 병들어 죽자 九日간을 아무것도 먹지않다 23일에 이르러 목매어 죽으며 유서에 孝자한자 벗어남이 없는 것이었다 한다. 그는 士人 金若淵의 아내 洪氏이다. 그뿐이랴 丙子亂때 벼슬을 하는 남편을 따라 江華로 갔다가 胡兵이辱을 봐이려하자 그 자리에서 自決한 金가女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丙子亂時 草月面 도평리 廣州落花岩에서 물속으로 뛰여든 아랫다운 계집들의 절개와 미담을 기리는 전설은 廣州땅 곳곳에 스며있다. 이로보건대 廣州는 그 어느 고장에 비길바 없는 孝烈의 고장이라 뽑내어도 망령됨이 아니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옛풀이 맑으니 오늘 또한 맑을 수는 없다하겠으나, 先人們이 고결하니, 오늘의 廣州人の 氣質이 맑겠다하여 거짓이 될가? 아름든 廣州는 南原을 능가하는 절조의 고장이며, 千秋의 不變하는 孝子의 고장임이 큰 자랑이리라.

第五章 祖國의 黎明을 알린 땅

舊韓末 鎮國의 障壁이 滔滔하게 밀려드는 近代資本主義 文明을 어느 모로 보나 막아낼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 指導層이 開化革新의 意志가 뛰어이 尖銳化된 것은 무엇보다도 修信使 金弘集의 日本往來와 黃氏의 “朝鮮策略”(清國公使 何如璣摩下에 있던 參贊官 黃尊憲所著로서 내용을 要約하여 보면, 그 첫머리 부터 地球上의 有英大上國焉하니 曰 我羅斯也라 其幅員之廣은 跨有三洲하고 陸軍精兵이 百餘萬이며, 海軍巨艦이 二百餘艘라前提하고, 願以立國 在北하며, 天寒之地脊인 故로 猥然思啓其封疆하여 以利社稷하고, 自先王以來로 新拓疆土하여 既有踰十倍인바 至於今王하여는 更有括四海하고 併吞八荒之心이라(中略) 俄欲略地에 必有朝鮮 始矣리니(中略) 然則策朝鮮 今日之急務는 莫急於防俄라 防俄之策이 如之何오. 曰親中國하며 結日本하고 聯美國하여 以圖自強而己라 主張한 다음, 美國을 紹介하되 其本爲英屬으로 百年之前에 有華盛頓者하여 不願受歐羅巴人苛政하고, 發舊自雄하여 獨立一國이라. 自是以來로 守先王遺訓하여 以禮儀立國하고 不貧人土地하며, 不貧人人民하고 不強與他人政事라. (中略) 蓋其民主國으로 共和爲政이라. (中略) 故로 常能扶助弱小하여 維持公義하고 便歐人으로 不能肆其惡이라. (中略) 既有意하여 以維繫朝鮮乎니 引之爲友那之國이면 可以結援이요, 可以紓禍라하여 極口讚揚하고 聯結하기를 勸告하였다 이 때문에 金弘集도 이 朝鮮策略을 所重히 生覺하여 國王에게 바치고, 그가 歸國하여 庚辰年 八月 二十八日 國王을 謁見하고 復命하기에 이르다. 이에 國王의 關心도 매우 새로워 진것이 事實이였으니, 그해 十月八日 次對(月六回政府重臣들이 入侍하여 重要政事を 上奏論議하는 會議)에서 國王이 먼저 朝鮮策略에 對한 重臣들의 見解를 問議하기의 이르다.

時의 一部 鎮國論者들의 強한 反對와 正面攻駁도 許多하였으나, 清日兩國을 仲介삼아 美國에 다시금 對韓修交를 實現하여보고저 防俄自強策으로 清日兩國의 留學生을 派遣하기의 이르다.

이리하여 外國文物의 輸入과 制度의 改革을 斷行코자 英美法德같은 西歐諸國과도 通商修好코자 庚辰年 十二月부터 統理機務衙門이라는 新衛門을 設置하고(新衛門은 凡百機務에 關한 事項을 區別管理하되 堂上郎廳을 差定하여 各其事務를 分掌한다. 前提하고, 다시 十二司로 나누어 事大交隣, 軍務, 邊政, 通商, 軍物機械, 船艦, 理用典選, 譏沿語學 等의 各司를 두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新衛門은 中外의 軍國機務를 總領케 되는 만큼 正一品衙門으로 마련케 하고, 大臣中

에서 總理를 任命하여 節制視務케하는 同時의 堂上官은 十員, 郎廳의 十八員으로 策定하여, 다음날 人事配置를 發令하기의 이르렀으며, 辛巳年 一月 十一日 十餘名의 朝士가 選拔되어 그들은 各自隨員을 引率하여 一月中으로 서울을 떠나 沿道의 民政을 視察하면서, 그해 三月 下旬에 東來와 釜山의 集結하여 日本汽船으로 秉船出帆하니, 이날이 四月 十日이며, 이것이 后日에 俗稱 紳士遊覽團이다. 이중에 爾吉濬이 겨우 年二十才로서 遊覽團의 同參 歸國後 復命하게 되니, 當時의 젊은 世代와 더불어 눈뜨기 始作한 이 나라 近代新文化를 輸入하기 爲한 巨步요, 劇期的인 試圖임에 틀림없다.

이로부터 爾吉濬은 廣州 黔丹山下에서 맑은 여울물소리를 벗하며, 저 有名한 西遊見聞錄을 쓴것이니 이 見聞錄은 昏昧하던 李朝末의 現代化의 눈을 뜨게하고, 새 조국 새 기운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學界에서 經濟界에서, 그리고 各分野에서 앞을 다투어 祖國의 새벽을 向하여 맥진맥진을 거듭하던 中, 日本의 浸略으로 스스로의 進路를 確立하였다. 그러나 廣州가 낳은 先知者 爾吉濬은 偉大한 業跡을 남겼다 할 것이다.

第六章 護國佛教를 다진 땅

佛教는 먼 옛날 中國으로 부터, 우리나라에 傳來된 后부터, 우리나라의 歷史와 文化를 함께 하며, 燦爛히 풋피여 우리나라 文化發達에 끼친 影響은 實로至大하다.

멀리 新羅의 文化를 풋피게 하였던 것도, 高麗의 浮沈과 興亡을 함께 한 것도 佛教와 其教僧들에 依하여 左右된 적이 적지 않았다 함은, 잘하는 事實이다. 그 때 그때마다 高僧名侶가 있어, 或은 說法으로, 或은 戒律로서 그 時代에 不無의 擔役을 하였고, 서라벌의 비단같은 文化的 기틀과 崇高한 精神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이나라 이땅 곳곳에 巨刹을 남기었다.

이고을 漢山(廣州) 또한例外는 아니어서, 멀리 百濟時代부터 敦篤한 믿음과 마음에 安息의 源泉으로 삼아, 착실한 佛子들이 不知其數이였다. 깊은 골 높은 山허리에는 으레 名刹이 있어 修道와 解脫의 고장이 되여, 연면 이어오며 그때그때 國難時엔 의연히 일어서서 敵과 싸워 祖國에 이바지한 僧侶들이 수 없이 많았다.

그런중에도 李朝中葉丙子, 丁卯兩亂을 前后하여 이곳 漢山周邊의 寺刹을 整備하여 佛子들에게 平素에 修養의 사람이 되다가, 亂時에는 몸을 던져 救國의 先鋒이 되도록 하여, 산성에 九寺를 짓고 僧軍을 養成하였으니 이 僧軍들 가운데는 혁혁한 공을 세운자가 실로 많았다. 그중에도 특히 강마군을 이끌고 용전한 두분스님이 있으니. 그는 각성대사와 벽암대사이다.

覺性大師(적진을 從橫으로 달린 스님)

覺性大師는 1575年(宣祖八年)~1660年(顯宗1年) 李朝中期의 高僧으로 號는 碧岩。字는 證圓이며, 俗姓은 金氏이니 報恩사람이다. 10세때 華山의 중 雪默을 스승으로 섭겨 出家, 十四才때 종이 되였다.

浮休를 따라 속리산, 덕유산, 가야산 等으로 다니면서, 經을 연구 초서, 예서에 능하여 서도로서도 뛰어났다. 1593年(宣朝二十六年)에 浮休를 따라 싸움터에 나가 海戰에서 功을 세웠다. 光海君때의 浮休가 무고로 투옥된後奉恩寺에서 判禪教都摠攝이 되었다. 仁祖때 八道都摠攝이 되어 南漢山城 쌓는 일을 감독, 三年만에 工事を 마치고 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의 號를 받았다. 丙子胡亂때의 仁祖께서 南漢山城으로 피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僧軍 數千名을募集하여 降魔軍이라하여 北上하던중, 和議가 이루어져 山으로 올라갔다.

그后 使臣으로 日本에 가던중 病으로 사퇴하고, 화엄사에서 餘生을 보내었다. 저서로 『圖中決疑와 看話決』이 있다.

碧巖 (降魔軍으로 대적하다)

碧巖스님은 1574年(宣祖 七年) ~ 1659年(孝宗 十年) 李朝때의 名僧이다. 忠清北道 報恩사 사람으로 九才때의 父親을 잃고, 十四才때의 出家하였으니, 그의 俗姓은 金氏이다. 浮休문하에서 중이 되었다.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浮休와 함께 參戰하였고, 난이 끝나자 禪門으로 돌아와 佛道를 닦기 위해 노력하여 그의 이름이 임금께 알려져서, 光海君의 부름을 받아 奉恩寺 주지가 되고, 判禪敎都摠攝에任命되었다. 浮休가 주은지 열마리 宗望에 의하여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며, 法幢을 지리산中에 짓고, 남선불道의 宗師가 되었다.

1624年(仁祖 二年)에 南漢山城 축조때 八道都摠攝으로, 이를 감독하고 工事가 끝나매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의 法號를 하사받았다. 丙子胡亂때는 義僧三千을 모집하여 降魔軍이라 稱하고 호남의 관군과 호응하였으며, 난이 끝나매 지리산으로 들어가 후진을 가르치다 열반의 들었다.

降魔軍 (구국의 역군 승병)

降魔軍이란 고려때 僧侶들로 편성된 특별군대로서, 숙종때 女眞의 侵犯이 심하여 尹瓘이 여러번 이를 정벌격퇴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히 여진의 騎兵活動이 대단하여, 고려는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늘 골치거리였다. 윤관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부대 설치를 건의하여, 1104年(숙종 9年)에 이르러 12월에 別武班을 조직하였다. 항마군은 별무반의 三軍中의 하나이며, 각 寺刹의 소속되어 있는 隨院僧侶를 정발하여 조직한 군대이다.

이 항마군은 임진, 병자 양란의 큰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第七章 아름다운 李朝白磁의 燒成地

우리나라는 옛부터 훌륭한 陶磁器를 燒成할 수 있는 훌륭한 지혜와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그리하여 全世界에 자랑 할만한 저 有名한 高麗磁器를 만들게 되니, 실로 우리의 크나큰 자랑이며, 民族의 珍持라 아니할 수 없다. 고려청자의 그 은은한 푸른빛과 스며든 精氣는 몇번이고 들이켜보아도 실증이 나지않는 무궁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이조백자와 같이 산뜻한 맛은 없다 하겠다. 이조백자는 여기에 비하여 은은이 감추어진 그 아름다움은 없으나, 밝고 정갈함이 뛰어나 소장가들의 절찬과 애원을 받고 있다.

이렇듯 간결한 이조백자중에서도 가장 질이 우수한 상품의 磁器를 우리 고을 廣州에서 빚어 가마의 구워냈으니 이 또한 廣州의 옛 情이 스며든 크나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분원을 비롯한 벌내, 초월, 사기막등을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分 院

分院이란 司鑿院의 製作所이며, 官營磁器 製造를 맡아보던 곳으로, 京畿道 廣州郡에 設置하였다. 그 후에 分廚院으로 改稱되었다.

分院沙器

分院沙器란 옛날 廣州 分院에서 만든 陶磁器로서, 廣州 分院의 設置에 對해서는 이조初期에 趙浚이 司鑿院에 言及했고, 『慵齋叢話』에도 廣州磁器가 精巧하다고 記錄이 있는것으로 보아, 李朝初期가 아닌가 追側된다. 只今は 廣州에서 그 遺跡이 廢塵化되었으나, 牛川의 土幕洞 및 漢江과 昭陽江이 合流되는 (北漢江과 南漢江) 兩頭水(兩水里)를 조금 내려온 廣州郡 南終面에 그 形跡이 있는것으로 미루어, 본디에는 廣州에 있었던 燒造所를 英祖 二十八年(1752年)에 옮겼던 場所라 生覺된다. 『大典會通』에 依하면 分院沙器의 原料에 對해서, 廣州水土 千四百 섬, 楊口白土 五百十石 等의 記錄이 있으며, 그 平均生產量은 千參百七十二竹이라 하였다. 一竹은 十箇이므로 每年 萬參阡七百二十箇의沙器를 生產하였는데, 이에드는 備用은 漢江 및 昭陽江(北漢江)을 내려가는 木材에 稅金을 附果하여 充當하였다. 『當時에는 漢江에 筏木(뗏목)으로 江流를 通하여 木材를 上流地方에서 부터 下流인 서울附近으로 운반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우리나라 全國의 磁器所一百參十九個所, 陶器所 百八十六個

所로 記錄되어 있다. 그리고 各磁器所의 位置와 地名을 點혔으며 磁器와 陶器의 質을 上, 中, 下品 等으로 區分記錄되어 있다. 이곳에는 그 어느곳 產品보다도 質이 特出하였던 우리고장 廣州燒成場을 記한다.

廣州地方磁器所名	伐乙川(별내)	品質	上品
所 山	"		下品
石掘里	"		下品
廣州地方陶器所名	草 峴	"	中品
草伐里	"		下品
梨 串	"		下品

위와같이 陶磁器所가 있었다 記錄되어 있다. 이것을 좀 더 仔細히 詳考하여 보면 古窯址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上品을 主로 生產한 伐乙川의 古窯址
2. 新月里 古窯址(李朝前期의 御器發注窯)
3. 上樊川里 古窯址
4. 李朝의 官窯와 分院里 古窯址
5. 宮坪里의 宮壺燒成址

(1) 伐乙川(道馬里附近) 古窯址

所在地 廣州郡 退村面 道馬里

時代 高麗 第四期~李朝前期 第二期(十四世紀~十六世紀)

種類 高麗象嵌青磁, 高麗青磁, 白磁, 染付磁器等

도마리(道馬里)는 陶村(도마을)이라는 뜻이 있을 것이다. 道路左右側발과 山谷間에 옛 燒成址가 자취도 없이 사라졌으나, 純白, 乳白, 若干의 青味를 띤 高台袖形어리가 磁器破片과 더불어 밭고랑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옛 磁器燒成址를 證하듯 빛나고 있다. 이곳에 흩어진 磁器破片과 高台에 内部에 千字文의 天地玄黃의 한 字를 彫字한 陶器片을 볼수 있으며 學者들에 依하여 象嵌青磁의 破片이 王왕 수집된 일이 있어 品質이 좋은 磁器를 燒成하였든 곳으로 評하고 있다. 그리고 李朝 陶磁譜에도 서술되어 있으며, 朝鮮陶磁名考에도 天地玄黃의 千字文字를 볼수있다 記錄되어 있다.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에 記載된 上品磁器所는 경상도 尙州에 2個所 高靈縣의 1個所, 그리고 廣州牧伐乙川(별내)의 一個所로 全部 四個所라 하였으며, 李朝 第九代 成宗朝より 부터 燕山君時代(1470~1506)에 쓰여진 成倪의 傭齊叢話에는 至如磁器, 須用白七精緻燔造, 然後可中於用, 外方各道多造之者, 惟高靈所造最精, 然, 不若廣州之尤爲精也, 每歲遣司鑿院官分左右邊, 各率書吏, 從春秋監造而輸納于御府, 錄其功勞而等第之, 優者賜物이라고 하여

廣州磁器를 李朝의 第一優品으로 인정. 그의 燒成과정을 恩賞으로 베풀었다한다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에 一在州東伐乙川, 上品造成이라 함은 道馬里磁器所를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2) 廣州 新月里 古窯址(李朝前期의 御器發注窯)

所在地 廣州郡 草月面 新月里

時代 李朝前期 第一期~第一期半(十五世紀)

種類 象嵌鐵砂, 青磁, 白磁

선동橋를 지나 新月里쯤지나 이곳에 約二百五十餘年前 金沙里方面으로 官窯가 있던 곳으로 追定되는 곳이니, 지금은 모두 밭으로 되어있어 窯址는 찾아볼 수 없으나, 現在 休耕中인 밭 이쪽저쪽에 磁器破片이 흩어져 있으니, 그規模는 꽤 큰것임을 알수있다.

이곳의 磁器는 道馬里것보다 흰빛은 없으나, 잘구어진 破片쪽에 윤택이 있다 高台內部에 癸未左, 丁亥左, 戊子右等 뜻으로 그어진 陰刻銘이 있는것이 있고, 陰刻한后 白磁釉를 칠한것도 있다. 干支는 年代를 表示하여 其窯의 活動期를 證驗할 수 있는 貴重한 資料이다. 사기막(寺幕), 도장동(道庄洞)등은 染付磁器는 燒成치 않았으니, 染付磁器는 個人은 使用치못하고 나라에서만 使用하였으므로 個人이 使用할 수 있는 鐵砂磁器를 燒成하여 士族에게 供給하였으니, 이制度는 李朝 第二十三代 純祖三年(1803)까지 이어졌다. 이 부근은 廣州川을 中心으로 左右로 磁器所를 設置하였을 것으로 學者들은 믿고 있다.(李朝前期半十五世紀頃)

例를 들면 左側으로 번천(樊川)方面에 道馬里가 있고,

右側으로 蘇美川유역에 牛山里, 道庄洞이 있음.

이곳에서 出土된 小壺에 庚六十이라 記한것이 있어, 王宮御用磁器를 燒成한듯하나 司饔院分院이 이곳에 있지 않았으니, 아직 定確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后期金砂里, 分院以前은 未分明하나 東國輿地勝覽土產磁器項에 每歲司饔院官率畫員監造御用之器라 하였다. 소미천에 沿한 退村面 판읍리 古窯址에서 出土된 磁器에는 庚寅左十八이라 記錄되어 있고, 京安(廣州邑) 송정리 古窯址에서 出土된 磁器片에는 庚寅右七十九라 기록되어 있어, 注目을 끌고있다.(燒成時代를 추정 할 수 있다)

(3) 廣州 上樊川里 窯址

所在地 廣州 草月面 上樊川里

時代 李朝前期 第一期 后期(15世紀~18世紀)

種類 青磁, 三島手, 象嵌鐵砂, 白磁, 染付等

번천(樊川) 國民學校壘山 一帶에 白磁片이 널리 흐터져 있으니, 이곳이 樊川古窯址이나 燒成址는 現存치 않고 다만 磁器片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곳에서는 鐵分含有의 素地의 靑磁를 구웠으며, 간혹 竹節狀의 磁器片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學者들의 研究對象址이며 仔細한 것은 알수 없다.

(4) 李朝官窯 分院里 古窯址

所在地 廣州郡 南終面 分院里

時代 李朝后期 第二期(18世紀~19世紀)

種類 白磁, 染付, 瑞璃釉, 辰砂, 染付와 鐵砂의 二彩, 染付와 鐵砂, 辰砂의 三彩.

이곳 分院에서는 司饔院官善政碑를 볼수 있다. 이곳 分院國民學校 中心부가 古窯址이다. 그리고 高地로 갈수록 上質의 破片이 있어, 古窯일수록 高地에 있었다 함을 알수 있다.

지금으로 부터 約二百八十年前 南終面 分院磁器所의 原料는 吾琴里, 또는 春川, 華川, 伊川, 洪川, 陽口, 晉州에서 갖어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朴祥의 訥齊集에 分院이란 文字를 볼 수 있으며, 肅宗實錄卷六十二에 보면 第十九代 肅宗四十二年(1718年 8月)에 乙未司饔院, 請移設燔所於楊根郡牛川江上, 仍以本院柴場稅米割屬分院, 一半資取柴木, 以資燔役, 一半充工匠料給, 而工匠所受餘丁布, 自本院棒用, 以除運輸之勞, 世子許之라 하였고, 楊根邑誌에는 英宗壬申, 移設廣州燔所于郡南五十里南終面이라 하였으니, 分院은 본시 楊根에서 옮겨온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分院은 英宗時에는 分廚院이라 썼던것이 北漢水, 南漢江水가 分流되는 곳이라 하여 三, 分하여 汾院이라 하였다하는 一說도 있다.

궁병(宮壺를 燒成한 마을 宮坪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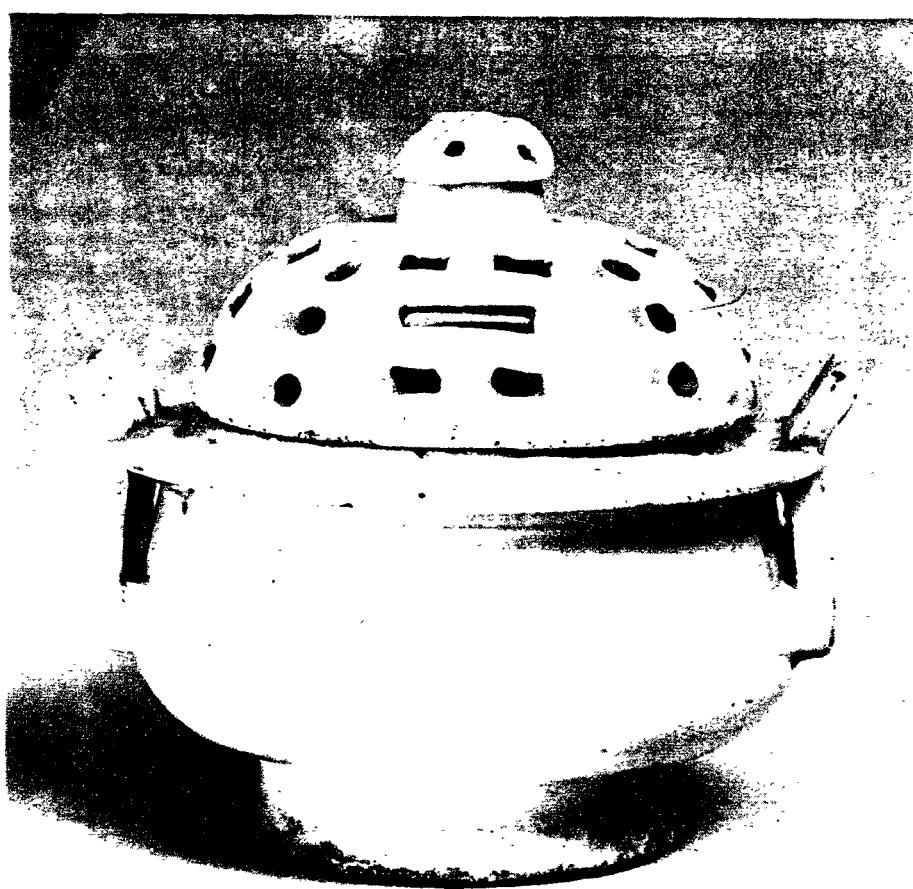
都尺面 宮坪里는 옛 궁에서 쓰던 궁병(宮壺)을 구워 燒成하였으며, 지금도 그 소성한 자취가 있다. 그리하여 宮병리라는 음에서 지금의 마을 이름인 宮坪里가 된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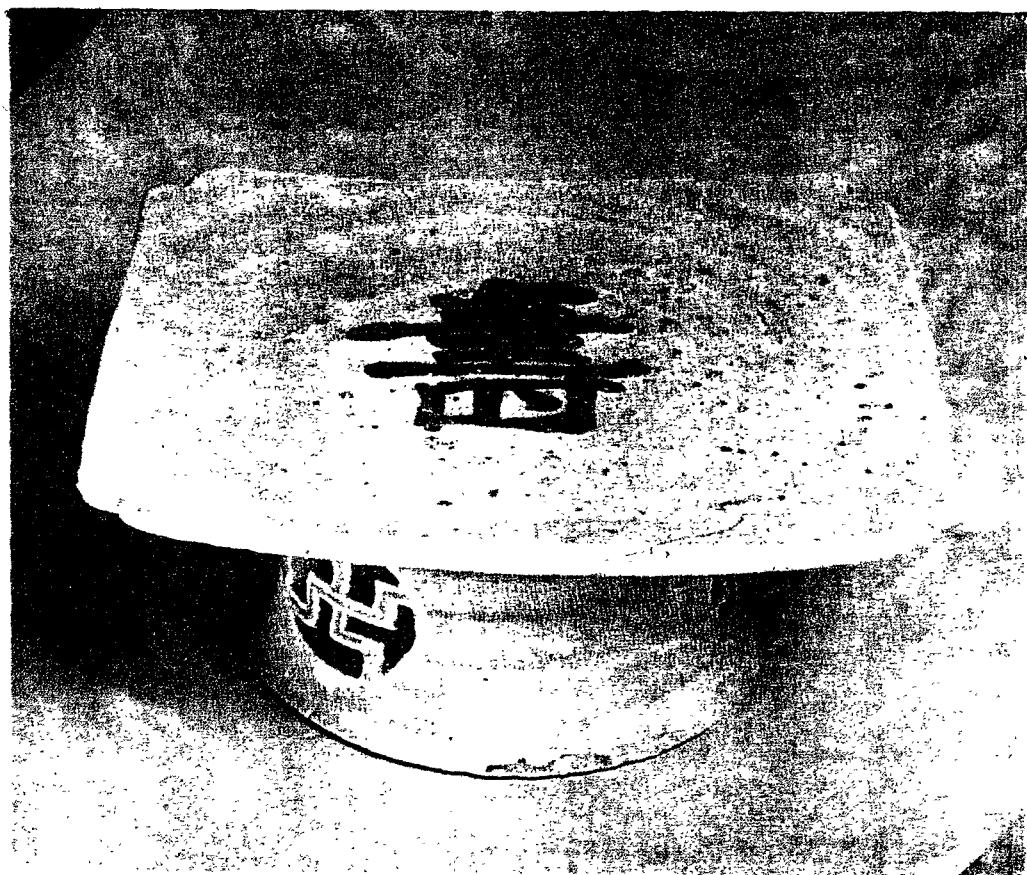
琉璃釉阴刻牡丹文瓶 李朝 高 16.5 cm 腹径 11.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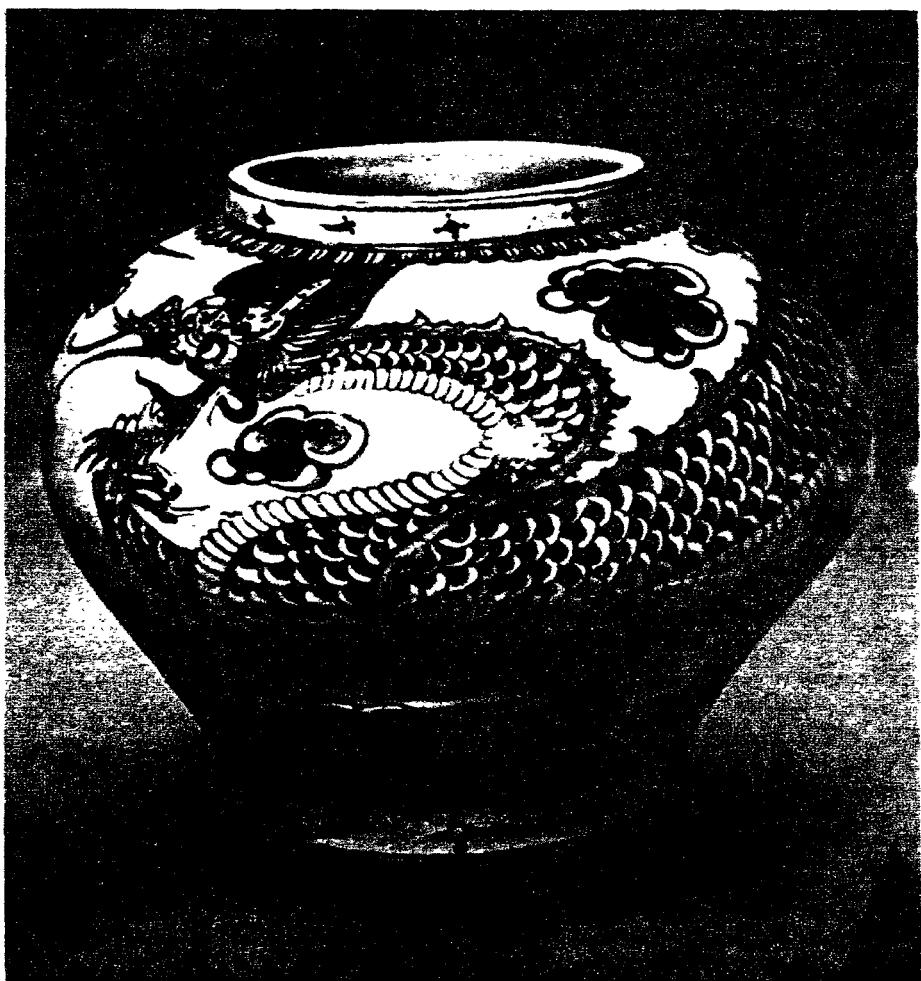
白磁透影芭蕉文筆筒 李朝 高 10.9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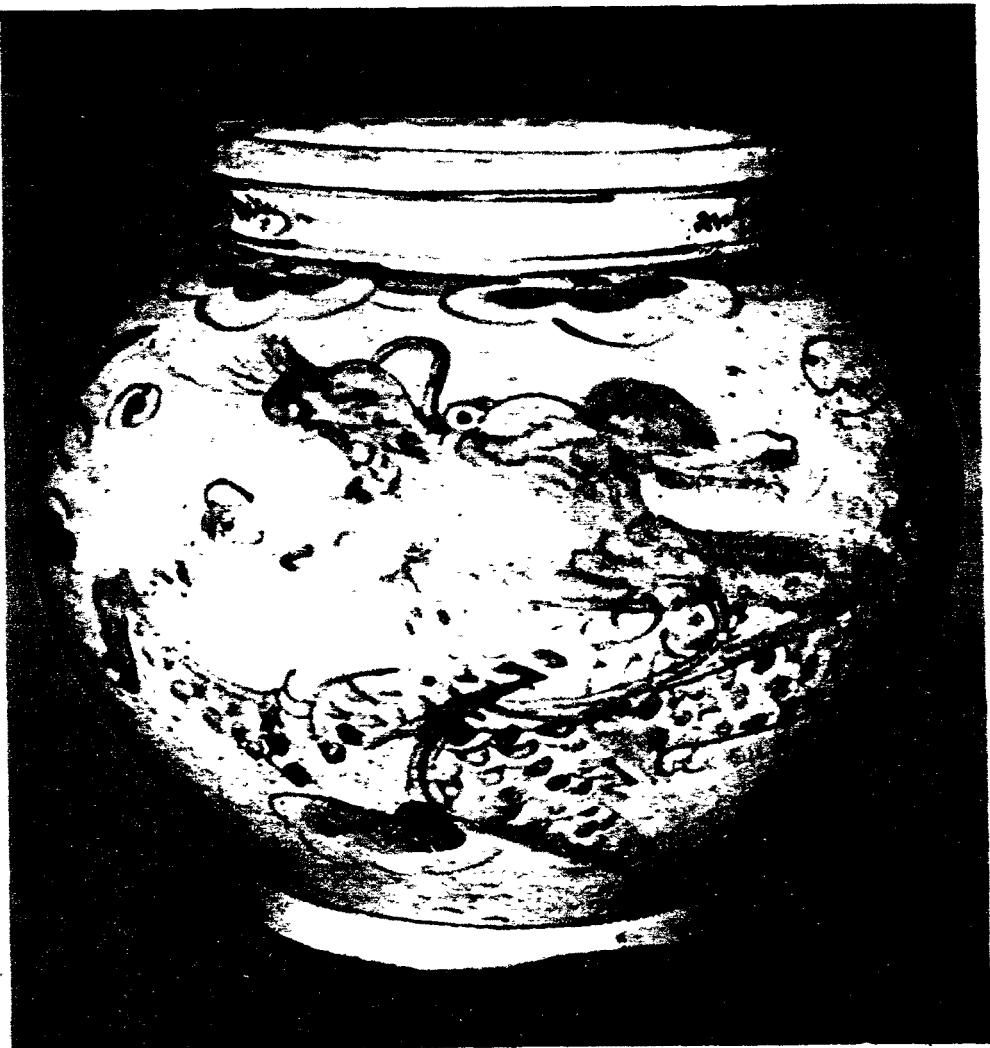
白磁透影八卦文香炉 李朝 高 16.0 cm



辰砂寿字透彫卍文台付祭器 李朝 高 15.0 cm 一邊 27.0 cm



染付龍文壺 李朝 高 32.5 cm 腹径 34.5 cm



染付龍文壺 李朝 高 24.5 cm 胸径 25.5 cm

第八章 天主教發祥地 天眞庵

退村面 牛山里 鶯子峰아래 天眞庵터와 그 앞에 있는 講會堂터는 한국에 카톨릭 真理와 신앙이 한국인들 손에 의해 誕生된곳이고 우리 겨레의 배들레헴이라 할 수 있다.

이 天眞庵은 강학회 事件과 함께 한국 카톨릭 신앙의 첫 출발지로서 永遠히 記念할만한 곳이고, 우리 겨레의 榮光이 될뿐만 아니라 全世界 歷史에 있어서도 길이 빛낼곳이다.

1779年 이벽, 이승훈, 정약용등 10名의 당대학자들이 우주만물의 진리탐구 토론의 학문모임으로 출발했다가 天主教의 진리와 도리를 깨닫고 진리실천, 신봉의 종교수련회로 변환, 천주교전파활동의 根源과 原動力이 되었다.

天眞庵터 정비시에는 災禍향로 1개, 작은 災禍종 1개, 글씨가 새겨진 기왓장등 유물이 출토되기도한 이곳은 鶯子峰과 溪谷의 景觀이 絶景이며, 특히 약수터가 有名한 곳이기도 하다.

第九章 유서깊은 老巨樹

1. 은행 나무 (동부 교산리 227)

이 나무는 廣州鄉校옆에 位置하고 있으며 樹齡은 5百年으로 추정되고 있는 古木으로서 樹高가 30m에 이르고 있고, 둘레가 7.5m이다.

稀木으로서 樹幹이 2個로 分離되어 있으며, 樹幹길이 5m에 洞空이 있으며 洞空에는 불탄 흔적이 있고, 솟나무로서 은행은 열리지 않고 있으며 道指定保護樹로 되어 있기도 하다.

2. 은행 나무 (西部面 項里)

보기드문 巨木인 이 나무는 수령이 840年으로 추정되며, 높이 40m에 둘레가 9.3m에 이르는데 每年 3~4冂의 은행을 수확하기도 한다.

이 나무에는 봄철에 樹木의 上下部로 부터 發芽하면 마을에 흥작이 오고 樹木 全體가 發芽하면 豐作이 온다고 하는 傳說이 있으며, 은행을 딸때 시루 멱과 술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음.

3. 느티나무 (實村面 悅美里)

樹齡 540年에 이르는 이 나무는 樹高는 15m 정도로서 큰편은 아니나 둘레가 7m에 이르며, 南向으로 뻗은 가지는 거의 枯死되어 있고, 樹幹에 直徑 2m의 洞空이 있다.

또한 이 老木에는 國家의 천재지변이나 큰 병화가 있을때,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며 능성 구씨의 具致寬(관직 영의정) 忠烈公이 父親의 墓所를 定한 후 심었다는 傳說이 있음.

4. 느티나무 (退村面 道馬里)

樹齡 500年에 이르는 이 老木은 樹高 25m에 둘레 5.5m로서 樹幹에 直徑 0.5m의 洞空이 있으며, 옛날 어느 한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은후 우물을 메웠는데 그곳에서 느티나무가 생겼다는 傳說이 있음.

5. 측백나무 (退村面 三成里)

樹令 300年인 이 老木은 樹高가 25m로서 둘레가 2m이며, 地上 1.5m에서 부터 樹幹이 2가지로 分離되어 成長되었다.

이 측백나무잎을 다려 먹으면 上血 및 下血에 좋은 약제가 된다고 傳한다

6. 香나무 (中部面 山城里)

樹令 350年인 이 香나무는 樹高 3m에 둘레가 1m에 지나지 않으나, 나무가 비틀려 자란 형태로서 모양이 기묘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南漢山城 쌓기工事を 감독한 이희의 사당인 清涼堂앞에 있으며, 옛날에는 萬臣들이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함.

7. 전나무 (초월면 대쌍령리)

樹令 250年인 이 巨木은 높이 25m에 둘레가 3m이며, 정충의 묘를 덮고 있으며, 병자호란당시 정충의 묘를 設置하고 심었다는 傳說이 있으며, 정충의 영혼에 里民이 제사를 지내고 있음.

8. 은행나무 (초월면 늑현리)

樹令 500年인 이 老木은 25m의 높이에 4m의 둘레로서 全體의 3분의 1이 枯死상태이며, 그 옛날 이름모를 스님이 지장이를 꽂은것이 나무가 되었다고 傳하며, 富子의 터라고 해서 금베틀이 묻혔다는 傳說이 있음.

9. 香나무 (實村面 昆池岩里)

이 香나무는 樹舍 250年으로서 10m 높이에 2.6m의 둘레인 稀木이며 바위틈에서 자라나고 있다.

임진란때 戰死한 申砬將軍의 墓所를 昆池岩里 大石洞 뒷산에 모실때 昆池바위가 두쪽이 나오고, 그곳에 香나무가 나왔다고 傳하고 있음.

10. 느티나무 (廣州邑 直里)

樹齡 400年인 이 老木은 21m의 높이에 둘레가 5m로서 全體의 절반 이상이 枯死되어 있으며, 옛날에는 귀달린 늙은 구렁이가 살았다는 傳說이 있으며 災仰이 있으면 나무가 웃다고 함.

11. 참나무 (草月面 島坪里)

이 老木은 樹齡 250年으로서 15m의 높이에 둘레는 1.5m이며, 枯死된 樹幹에 새로 움이 터서 成長한 나무이다.

丙子胡亂 당시 경상도 좌수사 支援兵들이 陣을 친곳이라 하며, 지금도 그 當時 戰死한 4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음.

12. 느티나무 (實村面 晚仙里)

樹齡 360年인 이 老木은 13m 높이에 둘레가 4m로서 360年前 개성 부사로 있던 이인민氏가 관직을 떠나 낙향하여 연못을 파고 정자수로 심었다고 傳해온다.

13. 엄나무 (廣州邑 直里)

이 엄나무는 樹齡 300年된 巨木으로서 높이가 30m, 둘레가 4.1m, 樹木面積이 25m²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꾀꼬리를 비롯한 각종 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매년 9月이 되면 전마을 주민이 모여 도당굿을 치낸다.